

2026학년도 어렵고 좇같은 파이널 모의평가 2회 문제지

국어 영역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도메이고속도로 시미즈정선을 시속 200km 넘게 달려나가는거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 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 독해 교육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텍스트를 ‘ 자극’으로, 정답 찾기를 ‘반응’으로 보는 훈련에 치중했다. 이 관점은 칭찬이나 점수 같은 외적 보상으로 독서 행위 자체를 강화하고 ‘공정적 태도’를 형성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는 학생의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접근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긍정적 태도가 독해력 향상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독해의 본질인 내적 의미 구성을 간과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인지과학은 독해를 내적 정신 과정의 산물로 재정의했다. 독해는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위가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정신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뇌는 텍스트 정보를 단순히 입력받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며,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는 역동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독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과학적 접근의 정수가 바로 스키마 이론이다. 스키마는 종종 배경지식과 혼용되지만, 인지 과학에서 스키마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닌, 그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직화된 정신적 틀이자 구조를 의미한다. 앤더슨과 피어슨에 의해 확립된 이 이론은, 개인이 가진 이 구조화된 체계가 독해를 좌우한다고 본다. 독자는 단편적인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틀을 활성화하여 텍스트 정보를 해석하고 예측하여 빈틈을 매워 나간다. 스키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추론이란 정보와 정보를 연결짓는 지적 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글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독해 교육의 성패는 스키마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돕는 데 달려 있다. 스키마 중심 교육법이야말로 독해력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가장 우월한 접근법이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독해 교육은 내적, 외적 동기를 통한 독서 행위 자체의 강화에 집중했다.
- ② 적절한 인지적 도구를 보유했는지의 여부가 독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인간의 뇌는 독해 과정에서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저장하는 역할 이상을 담당한다.
- ④ 독자의 긍정적 독서 태도는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위한 인지적 도구의 형성에 필요하다.
- ⑤ 독자는 독해 과정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여 글을 이해하기도 한다.

2.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스키마를 동원하여 글의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다.
- ② 스키마는 일종의 옷걸이처럼 작동하여, 텍스트라는 옷이 들어오면 독자는 이를 알맞은 옷걸이에 걸게 된다.
- ③ 인간의 복잡한 인지 활동은 스키마를 통한 텍스트 독해-정답 찾기의 쌍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 ④ 배경지식이 있더라도 스키마가 없다면 텍스트는 의미 없는 정보의 나열로 전락할 뿐이다.
- ⑤ 독서 교육의 성패는 피학습자가 적절한 스키마를 형성하고 활성화했는지에 달려 있다.

3. 윗글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3점]

&lt;보 기&gt;

연구진은 의도적으로 ㉠ 문법은 완벽하지만, 맥락 없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모호한 텍스트를 제작했다. 그들은 피실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 텍스트를 들려준 뒤,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해 냈는지 측정했다.

&lt;그룹에 따라 주어진 정보&gt;

**[그룹 1]**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모호한 텍스트를 접함**[그룹 2]** 모호한 텍스트를 들은 후에 ㉡ 주제를 통보받음**[그룹 3]** 주제를 통보받은 후 모호한 텍스트를 들음

&lt;실험 결과&gt;

**[그룹 1]**은 텍스트의 의미를 전혀 구성하지 못했으며, 기억해 낸 아이디어 단위는 평균 2.8개에 불과했다. **[그룹 2]**역시 평균 2.6개의 아이디어 단위만을 기억해 냈다. 오직 **[그룹 3]**만이 텍스트를 성공적으로 이해해서, 평균 5.8개의 아이디어 단위를 기억해 냈다.

&lt;결론&gt;

㉠

- ① ㉠은 ㉡ 없이 맥락만으로는 독자가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없는 글이다.
- ② ㉡시점에 독자에게 적절한 스키마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 ③ [그룹 1]의 결과로부터 스키마가 없으면 독해는 실패함을 알 수 있다.
- ④ [그룹 1]과 [그룹 2]의 결과로부터 스키마가 활성화되면 독해가 성공함을 알 수 있다.
- ⑤ [그룹 2]와 [그룹 3]의 결과로부터 스키마 활성화는 독해 이전 시점에 이루어져야 독해가 성공함을 알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앎, 즉 지식의 추구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어떻게 성립하고 지식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인식론은 언제나 철학의 핵심적 분야일 수밖에 없다. 지식은 보통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정의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식론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 것은 회의주의를 극복할 이론이나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회의주의는 어떤 믿음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중국적으로 모든 지식을 근거 없는 독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주의의 대표적인 공격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은 흔히 핀히하우젠 트릴레마로 불리는 논증이다.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은 가능하므로 모든 것에 정당화가 요구된다는 생각은 대체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어떤 정당화된 믿음 P가 존재한다면, P를 정당화하는 다른 믿음들의 사슬이 순환적 구조를 이루거나, 사슬이 무한히 이어지거나, 어디선가 특별한 믿음을 설정해 사슬을 끝내는 세 가지 경우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각 경우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나 혹은 모두를 거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인식론적 입장이 나뉘는데, 많은 철학자들은 믿음의 사슬을 끝내는 방법을 택했다. 즉 믿음은 그 정당화에 다른 믿음이 필요 없는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 기초 믿음이라 하며, 기초 믿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다른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철학적 입장을 토대주의라 한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관념론적 회의주의에 반대하며 ‘상식’을 강조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명백히 참인 일상적 사실의 명제들을 제시했다. ‘나는 팔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명제들은 감각 경험 자체가 정당화하는 믿음으로서,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내가 팔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회의주의를 비롯한 온갖 철학의 논변들이 당연한 상식적 믿음이 갖는 확실성보다 힘이 약하다며, 그 둘이 충돌된다면 그것은 철학의 잘못된 지향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무어의 사상은 일상적 확실성을 가진 기초 믿음을 주장하여 회의주의의 극복을 시도한 토대주의적 인식론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앎과 확실성의 문제에 몰두하였다. 그의 사후 출간된 『확실성에 관하여』는 이러한 사유의 메모를 모은 것으로, 그의 후기 철학을 바탕으로 인식론적 사유를 전개한 독창적 저작으로 평가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무어의 주장에 주목하며 사유를 시작한다. 그는 무어의 ‘나는 내가 팔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무어가 앎의 문법을 오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안다’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나 의심, 확인 등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어가 제시한 명제들은 그런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앎의 문법이 적용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무어가 그토록 안다고 주장한 ‘확실’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언어 게임 개념이 등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무어의 명제들을 ㉡ ‘경첩’에 비유하며, 그것들은 언어 게임의 바탕이자 틀을 ㉢ 이룬다고 설명한다. 문이 돌려면 경첩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언어 게임이 작동하는 데에는 먼저 확실성이라는 배경 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어가 저지른 실수가 드러난다. 무어는 일상적 명제의 확실성을 근거로 그것에 대한 앎을 주장하였고, 이는 확실성의 추구를 곧 앎의 추구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앎은 실수나 의심 등의 조건이 요구되므로 확실성과는 애초에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경첩’과 지식의 관계를 “강물의 흐름을 떠받치면서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아 위치를 옮기는 강바닥”이라는 비유로 나타낸다. 즉 ‘경첩’의 지위는 그것들의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면 ‘경첩’들은 그 지위를 잃거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 활동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심과 정당화를 비롯한 모든 지적 시도가 언어적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무어와 무어가 비판한 관점이 사실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그들은 의심의 게임도 그 자신의 틀 안에서만 성립함을 똑같이 간과한 것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의심은 아무런 의심도 아닐 것이다.”

4.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회의주의는 결국 어떤 믿음도 지식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 ② (가): 무어는 당연한 일상적 명제의 정당화 근거를 기초 믿음으로 삼았다.
- ③ (나): 비트겐슈타인은 무어가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 ④ (나): 비트겐슈타인은 확실성이 지식의 속성이 아니라 지식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본다.
- ⑤ (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 게임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어떤 앎도 있을 수 없다.



5. 세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의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세 가지 경우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 ② 토대주의는 세 가지 경우 중 믿음의 사슬을 끝내는 경우로 향하고, 이를 기초 믿음 개념으로 설명한다.
- ③ 회의주의는 세 가지 경우 중 정당화된 믿음이 부재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견해이다.
- ④ 회의주의는 세 가지 경우 중 믿음의 사슬을 끝내는 것도, 끝내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⑤ 토대주의는 어떤 믿음은 다른 믿음과 달리 특별한 내재적 성질을 지니므로 세 가지 경우 중 믿음의 사슬을 끝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어는 회의주의에 대한 방어를 시도했으나 회의주의와 동일한 오류를 저질렀다.
- ② 기초 믿음의 정당화 역시 언어 게임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 ③ 무어가 제시한 일상적 명제는 ‘안다’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선결 조건이다.
- ④ 무어는 일상적 명제의 확실성에서 그에 대한 앎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확실성과 앎을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다.
- ⑤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떤 지식도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화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 ② ㉠은 ㉡과 달리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이 아닌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로 지위를 유지한다.
- ③ ㉠의 정당화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의 성립은 언어 게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④ ㉠과 달리 ㉡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 된다.
- ⑤ ㉠과 ㉡은 모든 지식 중 가장 확실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대상들이다.

8.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데카르트는 기존에 알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지식이 불가능함을 확증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식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와중에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모든 학문을 뒷받침하는 중심적인 앎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흔들리지 않는 정당성의 바닥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근대철학의 중심적 원리로 나아갔다.

- ① 무어의 명제들이 언어 게임의 바탕이자 틀을 이룬다는 주장은, 흔들리지 않는 정당성의 바닥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한다고 본 데카르트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나는 내가 팔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흔들리지 않는 정당성의 바닥에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다고 본 데카르트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③ 어떤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확실한 것이 모든 학문을 뒷받침하는 중심적인 앎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카르트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④ 앎은 확실성과 애초에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확실한 것이 모든 학문을 뒷받침하는 중심적인 앎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카르트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⑤ 무어가 앎의 문법을 오용하였다는 주장은, 확실한 것이 모든 학문을 뒷받침하는 중심적인 앎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카르트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불안 탓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② 그녀는 마침내 유년기의 꿈을 이루었다.
- ③ 그는 마침내 연인과 혼례를 이루었다.
- ④ 노력하는 자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 ⑤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내를 이루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약리학은 약물과 인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체가 약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약동학과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약력학의 두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약력학적으로 약효를 예측할 때 약의 용량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약효는 용량에 비례하여 발현되지 않으므로 약물 고유의 ㉠설상과 인체의 보편적인 생화학적 반응, 약물 투여 대상 집단의 생리적 특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 개별 약물의 용량과 약효의 관계의 선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약물

투여 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약물 투여량에 따른 약효 변화의 양상은 용량-반응 곡선을 통하여 ㉞ 도시한다. 용량-반응 곡선은 특정 물질의 잠재적 투여 대상인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물질의 투여량에 로그 함수를 취한 값을 가로축, 표본 집단 중 투여한 물질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인구의 비율을 세로 축으로 갖는다. 모든 물질은 극미량에서는 인체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투여량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반응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일정 용량을 투여하면 표본 집단의 전체 인구가 물질에 반응한다. 완성된 곡선을 바탕으로 약효를 파악하고자 할 때 ㉟ 통상 표본 집단의 절반이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인 중간유효용량(Effective dose 50, ED50)과 99% 유효 용량을 측정하며, 측정된 수치는 ㉠ 상이한 약물 간의 약효 차이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

한편 약력학적 탐구에 요구되는 기본적 이해는 독력학적으로 독물의 독효를 탐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약력학적 관점과 독력학적 관점의 유사성은 파라켈수스가 남긴 ㉡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량만이 독이 없는 것을 정한다.”라는 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라켈수스의 ‘독’은 특정한 물질의 인체에 대한 효과이며, 효과가 인체에 득 혹은 실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약효 혹은 독효로 구분된다. 그러한 ‘독’이 물질의 용량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 곧 약리학 혹은 독리학이다. 따라서 투여한 물질이 인체에 독성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용량-반응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중간독성용량(Toxic dose 50, TD50)과 1% 독성용량을 측정한다.

특정 물질이 약물로 활용되려면 일반적으로 약효가 나타나는 용량이 독효가 나타나는 용량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물질의 성상에 따라 약효 발현 용량 구간과 독효 발현 용량 구간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의 실질적 안전성을 나타낼 지표가 필요하다. 치료지수는 중간독성용량을 중간유효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약효와 독효의 용량 구간이 ㉢ 중복될 때 활용되며, 특정 물질의 치료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물질이 약물로서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반면 치료지수가 낮은 물질일수록 약물로서 안전성이 떨어져 약물로 사용할 시 더 엄격한 의학적 주의와 감시를 요구한다. 그러나 비록 높은 치료지수를 갖는 약물 이더라도 발현되는 독효의 종류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의학적 감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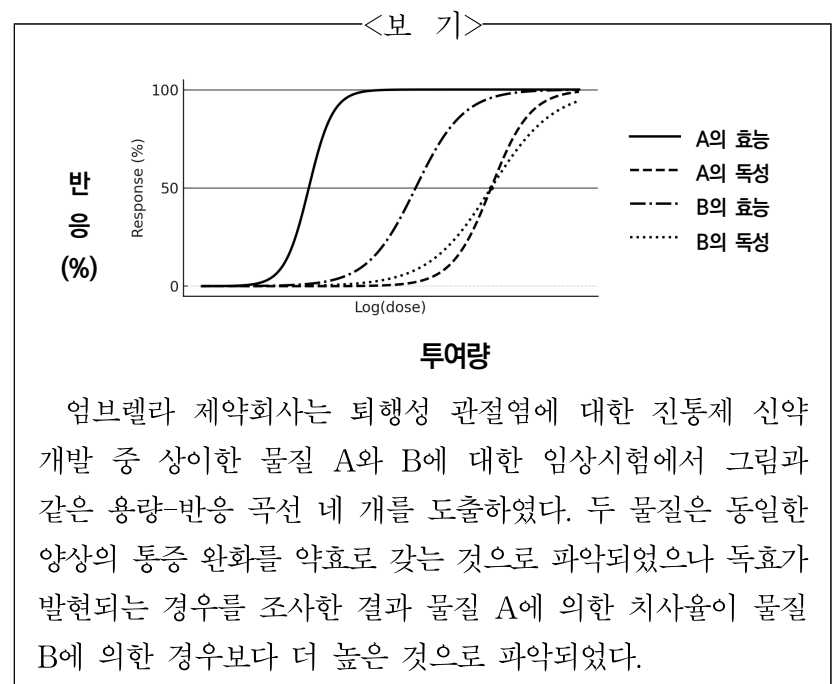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약효와 독효의 종류는 투약량이 결정한다.
- ② 약동학의 연구분야는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 ③ 투여한 물질의 양에 따라 인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 ④ TD50값은 약물 간의 약효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 유용하다.
- ⑤ ED50에 해당하는 양의 약을 투약받은 누구나 약물의 반응이 나타난다.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체에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된 약물의 효과는 파라켈수스의 ‘독’이다.
- ② 특정한 물질의 효과 중 인체에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탐구하는 것은 약력학적 탐구이다.
- ③ 특정한 물질이 인체에 대하여 득과 실 모두를 가져올 때, 각각의 효과는 모두 파라켈수스의 ‘독’이다.
- ④ ‘독’이 독효일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값은, ‘독’이 약효일 경우 측정하는 값과 다르다.
- ⑤ 특정한 물질이 인체에 대하여 득이 되는 효과만 나타내고 실이 되는 효과는 나타내지 않으면, 그 물질은 파라켈수스의 ‘독’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물질 B는 1% 독성용량이 99% 유효용량보다 낮으므로 약물로 활용될 수 없다.
- ② 물질 A의 독효에 대한 용량-반응 곡선의 기울기가 물질 B의 곡선에 비해 완만하므로 물질 A가 물질 B에 비해 약물로써 높은 안전성을 갖는다.
- ③ 물질 B는 물질 A와 비교할 때 관절염 인구 집단 전체에서 약효가 발현되기 위해 필요한 용량보다 낮은 용량에서 독효가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물질 A의 치료지수가 물질 B의 치료지수보다 높으므로 물질 A를 약물로써 사용할 경우 물질 B를 약물로써 사용할 경우와 달리 높은 수준의 의학적 감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⑤ 물질 A는 물질 B보다 임상시험 표본집단의 절반이 약효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을 독성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으로 나눈 값이 작으므로 진통제로써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13.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화훼는 일반적으로 성상에 따라 화초류와 꽃나무류로 분류한다.
- ② ㉡: 오빠는 이번에 지방 도시로 발령이 나자 가족과 함께 내려가기로 하였다.
- ③ ㉢: 이날 회견에서는 두 나라 간의 통상 문제가 논의되었다.
- ④ ㉣: 그는 월남전 참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이 전사였다.
- ⑤ ㉤: 쇠뿔도 녹이려는 뜨거운 중복이 지난 뒤 소나기가 한번 내렸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화물은 먼저 출발지 근처 영업소에서 수거된다. 이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이라 불리는 더 큰 거점으로 이동한다. 터미널 간 이동을 간선 운송이라고 하는데,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이동한 화물은 도착지 인근의 영업소를 거쳐 수령인에 도달한다.

터미널 간 운송 과정에 따라 택배 네트워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P2P는 화물을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곧바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한편, H&S에서 네트워크는 상위의 허브 터미널과 하위의 서브 터미널로 구성된다. 이 유형에서 모든 화물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모두 운송된다. H&S에서 지역 간 운송은 허브 터미널에서 한 번에 담당한다. 서브 터미널은 허브 터미널로 운송하는 중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H&S는 일반적으로 배송 과정에서 더 많은 터미널을 거치므로 도착 지연 확률이 높고, 순수 이동 시간이 보통 더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할당 가능한 화물 분류 시간이 P2P 방식보다 짧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P2P는 모든 터미널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해서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이동 경로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P2P는 물동량이 불균형한 경우 간선 운송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지만,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적재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터미널을 들러서 택배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배 주문의 배송비는 소비자의 주문량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비용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플랫폼에 편향은 그 예시로, 이는 소비자들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보다 고정된 정액 요금제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정액 요금제는 비록 최종 지불 금액이 더 늘어나더라도, 사용량과 관계 없이 마음 편하게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배송비를 일정한 금액으로 해 주는 정액배송 임계값 마케팅은 플랫폼에 편향을 사용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이다. 정액배송 임계값 마케팅은 일반적

으로 무료배송 임계값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플랫폼에 편향에 더불어 배송비와 무료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액요금 선호가 체계적으로 관찰되며, 이를 활용한 무료배송 임계값 도입은 소비자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무료배송을 위해 불필요한 상품을 주문하게 한다.

다만 연구의 또 다른 초점은 무료배송 임계값 도입이 추가 상품 구매를 넘어, 택배 주문의 빈도 자체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에 있다. ㉠ 어떤 학자들은 배송 요금제를 구간별 차등 요금제에서 플랫폼에 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상승했다고 느낀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방문하여 택배 주문 빈도와 온라인 소비가 감소하는 교차채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한편, ㉡ 다른 학자들은 무료배송 임계값을 도입하면 택배 주문 빈도가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이에 더해 ㉢ 일부 학자들은 무료배송 임계값이 낮아질수록 주문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H&S에서 총 배송 시간은 화물 분류 시간이 결정한다.
- ② 서브 터미널은 허브 터미널에 화물을 전달할 능력이 없다.
- ③ 소비자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 ④ P2P에서 운송은 수령인과 가장 가까운 터미널에서 시작한다.
- ⑤ H&S는 지역 내의 모든 터미널이 직접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15. 윗글의 ‘플랫폼에 편향’이 작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매년 고액의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고 후회한다. 연초만 해도 그는 자신이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회원권보다 연간 회원권이 경제적으로 이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을은 최근 통신사 요금제를 고액의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했다. 비록 을에게 무제한 서비스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수 회원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고 불필요한 요금제 변경을 한 것이다.
- ③ 병은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며, 모든 옵션이 포함된 풀옵션 패키지를 선택했다. 그 역시 모든 옵션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언젠가는 선택하지 않은 옵션 때문에 후회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④ 정은 가끔 집에서 영화를 보는 취미가 있다. 그는 최근 OTT 스트리밍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했다. 추가 요금 없이 모든 영화를 무제한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 번 결제에 대한 부담이나 귀찮음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다. 병은 치킨집에 미리 한 달 치 치킨값을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에 치킨을 수령하기로 했다. 미리 배달 주문을 넣으면, 퇴근 후 치킨을 기다리거나 치킨이 식어버리는 일 없이 딱 알맞게 도착한 치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구간별 차등 요금제를 사용하던 배달 음식점이 무료배송 임계값을 도입하자, 배달 주문은 줄어들고 방문 포장 빈도는 늘어났다면, ㉠의 주장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 ㄴ. 구간별 차등 요금제를 사용하던 온라인 매장이 차등 구간을 소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자, 택배 주문 빈도가 많아졌다면, ㉡의 주장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 ㄷ. 무료배송 임계값을 사용하던 온라인 쇼핑몰이 무료배송 임계값을 높이자, 택배 주문 빈도가 적어졌다면, ㉣의 주장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 어느 택배 네트워크 시스템의 한 단위 지역(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은 모두 허브 터미널이고 화살표는 간선 운송을 나타낸다. 이 시스템에서 한 셀에는 여러 허브 터미널의 존재한다. 이 지역 내부에서 화물은 ㉡를 중심으로 ㉡와 ㉢의 화물이 모여 분류되고 각 목적지 서브 터미널로 운송된다. 다른 셀로 운송할 화물은 ㉡에서 다른 셀의 허브 터미널로의 간선을 이용한다.



- ㄱ. H&S와 ㉠ 모두, 각 화물의 지역(셀) 간 운송 경로가 유일하다.
- ㄴ. H&S와 ㉠ 모두, 지역(셀) 내 운송 시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을 중간에 거쳐야 한다.
- ㄷ. ㉠은 지역(셀) 간 운송 시, P2P에서 나타나는 불균형한 물동량에 따른 효율 저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송나라 명문가의 후손 김전은 전쟁이 일어나자 딸 숙향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다 숙향과 헤어지게 된다. 숙향은 아버지와 헤어진 후 떠돌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장 승상 덕의 양녀가 되어 장 승상 덕에서 자란다. 이후 숙향은 시비 사향의 계책으로 누명을 쓴다.

사향이 거짓 승상의 말로 고하여 말하였다.

“숙향의 행실이 불측하여 내 벌써 내치라 하였거늘 뒤라서 감히 내 뜻을 거역하느냐?”하고 대노(大怒)하시더이다.”

부인이 말하기를,

“승상이 저렇게 노하시니 잠깐 몸을 피하여 있으면 사세(事勢)를 보아 너를 데려오겠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하니 숙향이 거듭 절하며 말하였다.

“부인의 두호하심이 간절하시나 승상의 노책이 엄절하시니 소녀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을 듯 합니다.”

사향이 또 고하여 말하였다.

“승상께서 ‘숙향을 바빠 보내고 아뢰라.’ 하시더이다.”

부인이 더욱 애련하여 시녀 금향을 명하여,

“숙향이 입던 의복과 쓰던 기물(器物)을 다 주라.”

하니 숙향이 울며 말하기를,

“부모를 다시 못 뵈옵고 오늘은 또 이러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오니 다만 이것이 한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내 승상께 여쭙어 무사토록 하리라.”

하니, 사향이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주선(周旋)할까 겁내어 말하기를.

“승상이 ‘숙향을 그냥 두었다.’ 하여 대노(大怒)하시더이다.”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아직 가지 말라.”

하고 승상께 들어가니 승상이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내 지난 밤 꿈에 벽도(碧桃)가지에 앵무새가 깃들었더니, 한 중이 도끼를 가지고 가지를 베어 내리쳐 앵무새가 놀라서 날아가 버리니, 꿈이 불길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술을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부인이 시녀를 시켜,

“주찬(酒饌)을 드리라.”

하고 승상을 보며 말하였다.

“㉠ 얼마 전 장도와 봉차를 첩이 숙향의 그릇에 넣고 망연이 잊은 탕으로 애매히 누명을 얻어 저가 몹시 슬퍼하니 불쌍합니다.”

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바빠 불러 위로하십시오.”

하였다. 사향이 이 말을 듣고 대경하여 급히 나와 숙향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승상께서 자네를 ‘그저 두었다.’하여 부인을 크게 책망하시니 급히 나가라.”

하거늘 숙향이 말하기를,

“부인이 나오시거든 하직하고 가겠노라.”

하니, 사향이 소리 질러 구박하여 말하기를,

“승상과 부인이 너를 호의호식(好衣好食)으로 길러 친자식같이 하셨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몹쓸 욕심으로 도적절하고자 하느냐? 부인도 승상께 노책을 받으시고 나오실 일이 없고 나도 ‘너를 더더 보낸다.’하여 죄를 얻겠으니 바빠 나가라.”

하니, 숙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려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말하기를,

“㉠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가라. 만일 승상이 알으시면 큰 일이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도록 승상집을 돌아보고 울며 기다라. 한 곳에 다달아 보니 문득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으로 헤매이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거두쳐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지라 모두 탄성을 내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였다. 이 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만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蓮葉舟)를 바삐 저어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버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姮娥)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오희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고 **용녀**(龍女)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까?”

하니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전에 사해 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하여 감추었더니 부왕(父王)이 알으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 내치심에 수변(水邊)으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상서의 구함을 업어 살아났으나 그 은혜를 갚을 일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전의 집에 적강한 뒤로 노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라고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自願)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와서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 ③ 등장인물의 말에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인물의 말과 속마음을 모두 서술하여 인물이 입체적 성격을 가짐을 드러낸다.
- ⑤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사건의 긴박함을 부각한다.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인’은 숙향의 행동에 화가 난 장 승상을 진정시키려 한다.
- ② ‘숙향’은 자신을 키워 준 장 승상에게 고마움을 전한 후 장 승상 댁에서 하직한다.
- ③ ‘장 승상’은 자신이 지난 밤에 꾸은 꿈을 근거로 숙향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용녀’는 숙향으로부터 자신이 과거에 받은 도움을 언급하며 숙향을 도운 이유를 밝힌다.
- ⑤ ‘사향’은 장 승상과 부인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급해져 숙향에게 거짓말을 한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숙향의 처지를 토로하는 말이고, ㉡은 숙향의 안전을 위해 당부하는 말이다.
- ② ㉠은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고, ㉡은 하직하는 숙향을 조롱하는 말이다.
- ③ ㉠은 숙향의 누명을 설명하는 말이고, ㉡은 누명이 벗겨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말이다.
- ④ ㉠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고, ㉡은 숙향과의 재회를 기약하는 말이다.
- ⑤ ㉠은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을 알려 주기 위한 말이고, ㉡은 숙향과 친분을 끊지 않기 위한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적강 모티프는 천상계의 주인공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간계에 내려와 시련을 겪는다는 이야기 요소인데, 「숙향전」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숙향은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숙향전」은 ‘적강 모티프를 차용한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보기 드문 설정을 갖는다.

- ① ‘천상에서 득죄하여’ 인간계에 내려온 숙향이 ‘피난길’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적강 모티프에서 인간계에 내려온 주인공이 겪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 ② 숙향이 ‘물에 뛰어’들자 ‘연엽주’를 타고 와서 숙향을 구한 ‘계집아이’는,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서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등장하는 조력자에 해당하는군.
- ③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린 사실을 은폐한 것은 적강 모티프에서 주인공이 저지른 잘못으로, 주인공이 인간계에 내려오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군.
- ④ ‘용녀’가 숙향이 위험해질 것을 미리 알고 ‘오색구름’을 일으키며 숙향을 구하러 온 것은, 영웅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기적인 요소에 해당하는군.
- ⑤ 숙향이 장 승상 댁에서 ‘누명을 얻’어 쫓겨나는 것은, 적강 모티프에서 인간계에 내려온 인물이 겪는 시련이자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난에 해당하는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婦人)의 모양 보소  
출가(出嫁)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흉도 허다(許多)하다  
게염스런 ㉠ 시어머니 암투할사 시아버지  
야유데기 시누이와 엄숙데기 만동서며  
요악(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씨앗년의  
거세도다 ㉡ 남노여복(男奴女僕) 들며 나며 흙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숫병을 기울이고  
치마 쓰고 내단기와 붓짐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 여승(女僧)이나 따라갈까  
들 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 볼까  
긴 장죽(長竹)이 벗님이요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요  
겉으로 설움이요 속으로 판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요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그려 맞닥수라  
㉤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 볼까

- 작자 미상, 「용부가」 -

\* 반분대: 살짝 열게 칠한 화장

\* 들고 나니 초롱꾼: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말.

(나)

불쌍하다 복도 백성 한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쏘냐 형편이 하릴없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쏘냐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차마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百拜)**하고 비노니  
**봄기운이 포텍\*할 때 이곳부터 먼저 도우면**  
먼 곳의 저 사람들 거의거의 도모하리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육천오백 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아이야 잔 씻어라 천황씨(天皇氏) 일만 팔천  
지황씨(地皇氏) 일만 팔천 합하여 **삼만 육천 세를**  
**우리님께 술잔 올려** 만수무강 기원하자

- 구강, 「복새곡」 -

\* 포텍: 은덕과 혜택을 배품

(다)

가련하다 굶주린 백성들아.  
진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당초에 곱게 찢은 곡식으로 받았더니  
진흙청의 모든 쥐가 각 창고에 구멍 뚫고  
밤낮으로 드나들며 섬섬이 까먹었고  
이번에 얻는 곡식 쪽정리로 나눠 주네.  
환곡 맡은 저 두승(斗升)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가 정확한 그릇을 만들었거늘  
까닭 없이 도량 바뀌 제 잇속을 차리는가.  
엿그제 넓던 도량 탐욕스레 작아졌다.  
세상이 변하였다, 사람이 거북 되어  
진창(賑倉)에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본성이 쥐인지라 마침내 짐승 되어  
창고 안의 진곡미(賑穀米)를 다 빼어 물어간다.  
여뀌 잎을 굴을 삼고 깊은 밤에 흠쳐가니  
석서가(碩鼠歌) 일어난들  
교활한 쥐구멍에 남은 쌀이 어디 있으리.  
실갓 쓴 작은 영감 진시황의 성을 얻어  
다만 앓아 휘파람에 즐기면서  
담뱃부리 소매참에 넣어 두고  
제멋대로 붉은 먹으로 못되게 꾸며내며  
힘없는 백성들을 때리면서 깎아내니  
굶어 죽은 주검들은 본체 앓고  
제 제물만 사사로이 도모한다.  
진흙을 맑게 하소.  
없는 사람 장부에 올리기가 끝이 없다.  
진흙 아전 긴긴 창자 굵이굵이 다 채우니  
굶는 백성 네 죽거라, 일마다 죽겠구나.  
이 시절 이러하니 바랄 것 없겠구나.

- 작자 미상, 「임계탄」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점층법을 사용하며,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며 시적 대상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시대 양반 계층의 시선에서 여성은 봉건적인 속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남성에게 복종하는 수동적인 주체였다. 그러나 (가)에서 표현하는 여성의 시집살이는 양반 계층의 이상과는 크게 어긋나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①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는’ 저 부인의 모습은 당대의 여성상과는 다른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② ‘시집살이 못하겠다며 간신히 기울이는’ 모습은 수동적이고 억압당하는 여성이 아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③ ‘반분대로 일을 삼고 털 뽐기’에 시간을 쓰는 저 부인의 행동은 당대의 여상에 대한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겠군.
- ④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하는 저 부인의 모습은 당대 사람들에게 유교적 가치관을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겠군.
- ⑤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그러 맞넉수’하는 저 부인의 모습은 남편에 종속되지 않은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드러내는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라는 표현을 통해 가혹한 현실에 유교적 가치를 잃은 백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통해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한 임금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햇빛 아래 백배’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금에게 충성하는 화자의 충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봄기운이 포퓰할 때 이곳부터 먼저 도우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복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삼만 육천 세를 우리 님께 술잔 올리자는 표현을 통해 복도 백성을 위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5. (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량을 바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수자를 작고 탐욕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 ② 탐관오리를 거북으로 표현하며 백성을 신경 쓰지 않는 사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곡식을 쭉정이라고 표현하며 백성들의 기근에 무관심한 조정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없는 사람을 장부에 올리는 관리를 거북에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기대와 반대가 되는 상황을 통해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2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저 부인의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는 인물임이지만 동시에 저 부인을 신경 쓰는 인물이다.
- ② ㉡은 ‘들며 나며 흠구덕’을 하며 저 부인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은 저 부인의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는 인물이다.
- ④ ㉣은 시집살이의 힘들음을 강조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저 부인의 자신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저 부인의 감정을 나타낸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

(나)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 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박 난간 열두 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쭉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물을 씻으렵니까.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남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

(다)

창해옹은 이런 말씀을 했다.

“사람이 살아가며 활개 치고 다니는 것은 정신이요, 사물과 접하는 것은 눈일세. 그 정신이 막히면 속이 답답하고, 세상 구경하는 것이 협소하면 시야가 좁아지지. 정신과 세상 구경, 둘 다 협소하면 사람의 기운이 크게 펼쳐지지 못하는 법이네. 늙은이의 눈으로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을 보면, 겨우 ㉠ 진흙 구덩이의 지렁이나 새우젓 속의 등애에 불과하다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선생의 말씀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거침없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옹이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있네. 세상에서는 ㉡ 추자(騷子)\*가 하는 말을 인간의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휘둥그레 눈을 뜨고 빨려 들어가지. 그러나 허황된 세계를 추측하느니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낫고, 말을 과장하여 하느니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 낫네.

해동의 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다한다면 ㉢ 나의 정신을 트이게 할 수 있네. 이 늙은이가 서른이 되어 청노새 한 마리, 아이종 하나, 보따리 하나, 이불 한 채를 가지고 길을 나서서, 남으로는 낙동강을 노닐고 덕유산에 오르고 속리산을 더듬고 월출산을 오르고 지리산을 엿보았고, 서로는 대동강을 굽어보고, 동으로는 태백산과 소백산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넘어 금강산을 두 번 들어간 뒤 바닷가를 따라 들어왔네. 오직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에만 아직도 창해옹의 족적이 없단 말씀이야. ㉣ 허나 이 늙은이는 아직 노쇠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유산기(遊山記) 한 권을 꺼내 보여 주었다. 무너진 담장 아래 깎아지른 듯한 벼랑 밑에서 피곤에 지쳐 쉴 적에, 등불을 밝히고 나무껍질을 벗겨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써 내려간 글이었다. 그의 글은 꾸미기를 일삼지 않고 정사(情思)가 뛰놀아서 구애를 받은 데가 없었다. 또 그림이 중간에 섞여 있는데, 산의 맥을 찾고 물길을 따지며 깊이를 헤아리고 먼 거리를 본뜬기에 ㉤ 명백하여 속이 시원하였다.

- 강이천, 「창해옹의 산수 여행」 -

\* 추자: 제나라의 학자.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인칭 대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나)는 경어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시간과 공간은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 제시된 모든 시간과 공간이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 자유롭게 시공간을 가정하거나 고안한 뒤, 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가)의 ‘아라비아의 사막’은 실재하지 않는, 화자가 떠올린 공간으로, 화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공간과 대립적인 의미를 형성하는군.
- ② (나)의 ‘돌문’이 ‘굳이 닫힌’ 시간은 화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간으로, ‘검푸른 이끼’는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나타내는군.
- ③ (다)의 ‘백두산’과 ‘한라산’은 실재하는 지명으로, 창해옹은 각각 ‘북쪽’과 ‘남쪽’에 있다는 속성에 주목하여 이 둘에 대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군.
- ④ (가)의 화자가 ‘옷자락을 나부끼며 호을로 서’는 시간과 (다)의 창해옹이 ‘족적’을 찍는 시간은 모두 미래의 시간으로 아직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시간은 아니겠군.
- ⑤ (나)의 ‘당신이 오시는 날’은 화자가 소망을 담아 상정한 미래의 시간이지만, (다)의 ‘서른’은 창해옹이 실제로 겪은 과거의 시간이겠군.

29.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창해옹이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을 평가한 내용이다.
- ② ㉡은 창해옹이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된 세계를 추측’하고 ‘말을 과장하여’ 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대상이다.
- ③ ㉢은 창해옹이 ‘길을 나서’는 목적이다.
- ④ ㉣은 창해옹이 산수 여행을 계속할 것임을 암시한다.
- ⑤ ㉤은 ‘나’의 기존의 생각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0. 다음에 따라 (가)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벗어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① 화자의 현실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생명이 부대’겨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기 때문이야.
- ② 화자의 인식한 부정적 현실은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
- ③ 화자가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에서 본질적 자아를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나.
- ④ 화자는 ‘열렬한 고독 가운데’서 본질적 자아 탐색을 수행하여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울 거야.
- ⑤ 화자가 ‘쪼이’는 ‘회한 없’는 모습의 ‘백골’은 화자가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실패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원 소송 관계인 휴게실 맞은편에 차를 대고 내리자 혹 하는 열기가 숨을 막아왔다. 휴게실에서 나온 회사 비서실 사람들이 공판정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지나가는 왼쪽 나무 그늘 속에 공원\*들이 서 있었다. 숙모와 사촌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함께 새벽같이 왔다 각기 돌아간 뒤의 두 사람을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내가 지나갈 때 나무 그늘 속의 공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서 보기만 했다. 완만한 비탈길을 올라서자 햇빛을 받아 늘어진 줄이 나타났다. 중간까지의 사람들만으로 공판정은 넘칠 텐데 내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줄은 자꾸 늘어났다. 대부분이 은강 공장에서 올라온 스무 살 안팎의 공원들이었다. 아예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매점과 법정 건물 벽 그늘에 앉아 개정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았다. 나는 매점 공중 전화기 앞에 서 있는 두 여공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난장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계속 조업 공장에서 밤 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잔 듯한 두 여공은 핏발이 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한 아이가 모른다고 말했다. 그 옆의 여자아이는 달랐다.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는지도 몰라 말해주고 싶지 않지만, 꼭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말해주는데, 잠시 후에 판결을 받을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실은 굉장히 큰 거인이었다고 단숨에 말했다.

(중략)

변호인이 말했다.

“㉢방금 한 말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우발적인 살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당시의 심적 상태를 간단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철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해 본 공장 동료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려, 엉엉 소리 내어 우는 현장에 저는 서 있

[A] 어 보았습니다. 웬만한 고생에는 이미 면역이 된 ㉥천오백 명이, 그것도 일제히 말입니다. 교육도 받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 깊은 공장 밖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뇨.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그것이 살해 동기입니까?”

“개새끼!”

내가 외쳤다.

내가 외치는 소리를 옆자리의 사촌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가 왜 그 따위 생각해야 된단 말인가.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 속에 모진 생각들만 처넣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경영·경쟁·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그 중독 독물이 설혹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저의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다.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다.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 사회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했다. 이상에 현실을 대어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언더리가 났다. ㉨그들 중의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난장이의 아들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다.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물 속으로 들어가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한 때의 물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 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 올렸다. 큰 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천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갓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켠다. 서쪽 유리창에 황적색 저녁놀이 와 닿았다.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져 창가로 가

내다보았다. 대기 속 물질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빛을  
[B] 운반해오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흰 벽이 저녁놀빛을  
숲 쪽으로 받아 던졌다. 돌아간 할아버지의 늙은 개가 그  
숲에서 기어 나왔다. 달아오른 몸으로 나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여자아이가 늙은 개를 불렀다. 개 밥그릇을 개집  
앞에 놓아준 여자아이가 늙은 개의 몸을 꼭 껴안았다.  
난장이의 큰 아들이 끌려나갈 때 난장이의 부인이 그런  
몸짓을 했었다. 공원들은 밖으로 나가 울었다. 지섭은  
울라울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때 수위가 철문을 밀어붙이는 것이 보였다. 이팝나무숲을  
끼고 돌아온 아버지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섰다.  
내일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보자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나를 제쳐놓을 것이다. **사랑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밝고 큰 목소리로 떠들 말들을 떠올리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 공원: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 정리: 법원에서 법정 내의 잡무를 도맡아 하는 직원.

3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대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서술하는 시간 구조와 서술되는 시간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B]에서는 현재 시제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인물의 경험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B]와 달리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짧은 문장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이 겪는 혼란을 강조하고 있다.

32.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33.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그 옆의 여자아이’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 ② ㉡: ‘난장이의 아들’이 ‘변호인’의 유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했음이 나타난다.
- ③ ㉢: ‘난장이의 아들’이 살인의 이유를 숨기기 위해 같은 말을 다시 발언하고 있다.
- ④ ㉤: ‘변호인’이 신문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한 발언이다.
- ⑤ ㉥: ‘난장이의 아들’이 ‘공장 밖 사람들’에게 한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가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주변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근대적 세계관과 세계질서는 인간의 소외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을 뿐이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는 이러한 근대의 이항대립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 나타난다. 은강그룹 총수의 셋째 아들로 미래의 그룹 경영을 꿈꾸는 작중 화자 경훈의 이중적 행동과 변화는 당시의 지배담론이 결코 자족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 한 노동자들을 경멸하면서도,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한다.

- ① ‘난장이의 아들’이 은강그룹 총수에 대해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한 것에, 경훈이 “개새끼!”라고 외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을 표출한 것이겠군.
- ②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훈의 모습에서 당대의 지배담론의 비인간성을 엿볼 수 있군.
- ③ ‘난장이의 아들’을 ‘작은 악당’, ‘지섭’을 ‘조금 큰 악당’이라고 지칭하는 경훈의 모습에서, 그가 가장 큰 악당은 어쩌면 자신들 일지 모른다 생각함을 추론할 수 있군.
- ④ 경훈이 꿈 속에서 ‘양상’한 ‘가시고기’가 자신에게 뛰어오르며 자신의 ‘살갗’이 ‘찢어’지는 모습을 본 것은, 그의 사고가 이미 이중적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겠군.
- ⑤ 꿈에서 깬 경훈이 ‘사랑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밝고 큰 목소리로 떠들 말들을 떠올리’는 모습은, 그가 세계관의 내적 충돌을 해결했음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